

강진군,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2025년 중위소득 인상 복지 강화
생계 1인가구 7.3% 4인 6.4% ↑
65세 이상 근로소득 추가공제
2025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

강진군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될것으로 기대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며 높아질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3000원에서 2025년 76만5000원으로 최대 7.3% 월 5만2000원이 인상되며 4인가구 기준은 2024년 183만4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최대 6.4% 월 11만7000원이 인상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해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강진군은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 배너 설치와 플래카드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삼호읍 솔대목산 등산로 새단장
영암군, 데크 계단·보행매트 설치

영암군이 지난달 29일 삼호읍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를 마치고 개방했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36.6km의 솔대목산 등산로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대불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 옆에 위치하고 최고 123.2m의 대체로 평탄한 코스여서 평소 주민과 기업체 직원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영암군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방면에서 올라가는 길에 데크 계단 90m를 설치해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했다.

나아가 휴게공간 주변에 수국 등 3종 1865본의 꽃을 심어 등산로 안팎을 산뜻하게 가꿨다.

이밖에도 경사구간에 보행매트 설치와 유희부지에 운동기구와 벤치를 추가하고 가로등 15주를 보수하는 등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솔대목산 등산로처럼 생활 속에서 영암군민이 건강을 가꾸는 길을 잘 정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1인당 70만원까지 구입 가능

해남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간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1인당 구입한도는 70만원으로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35개 판매대행기관(농협,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수협)에서 구매 가능하며 카드 상품권은 판매대행기관에서 발급한 후 지역상품권 앱(착, chak)을 통해 구매(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사랑카드 또는 QR상품권 결제시 캐시백 행사도 지속한다.

상품권 가맹점에서 카드나 QR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5%를 되돌려 준다.

카드상품권 이용자는 구매시 10% 할인을 받고 결제시 5% 캐시백이 추가 적립돼 15%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고 온가족과 친지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데 해남사랑상품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애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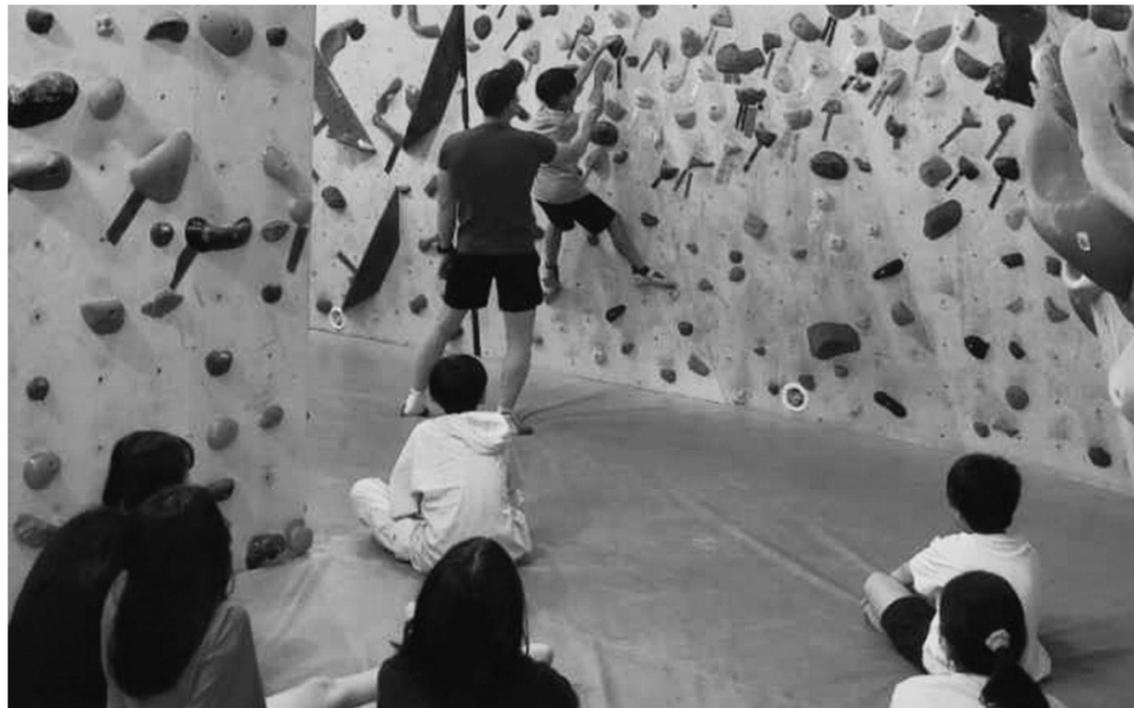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논의 목포경찰, 공동치안 강화

목포경찰(서장 김범상)은 3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과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목포경찰 지휘부와 안보자문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안보자문협의회 회원들의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후 탈북민 지원과 국가안보 자문을 포함한 협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안보자문협의회와 같은 협력단체들과 함께 공동치안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어린이들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체험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달 31일 드림스타트 아동 40명과 스포츠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드림스타트 아동 스포츠 체험활동

강진군이 지난달 31일 드림스타트 아동 40명과 함께 무안군에 있는 클라이밍 체험카페를 찾아 스포츠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스포츠클라이밍은 최근 파리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 출전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들도 클라이밍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해 보고

자 하는 분야이다. 클라이밍 압박등반은 지구력, 집중력, 균형감각, 유연성에 도움이 되고 전신 근육운동으로 끈기 및 자신감 고양에 매우 좋은 운동이다.

체험은 사전 준비운동과 압박등반 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도 선생님이 꼼꼼하게 알려주고 안전요원이 배치돼 한명 한명 안전장치를 채우고 오르고 내려오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됐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담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

오정숙 군민행복과장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압박등반 스포츠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들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부분도 한층 더 성장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전남청 주관 '베스트 형사팀' 선정
완도경찰 형사팀

완도경찰서(총경 이성일) 수사과형사팀이 3일 전남경찰청이 주관하는 평가에서 '2024년 상반기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돼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완도경찰에 따르면 베스트 형사팀은 도내 22개 경찰을 대상으로 강도나 절도와 같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검거 성과,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급지별로 최고의 팀을 선정하는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된 완도경찰서 형사팀은 이 기간 동안 양귀비 밀경 사범 검거, 가정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5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절도 피의자 검거 등 중요사건을 처리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관내 체감 치안 향상에 기여했다

수상은 전남경찰청 나원오 수사부장이 직접 완도서를 방문해 형사팀 전원에게 베스트팀 인증패와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해 눈길을 끌었다.

이성일 완도경찰서장은 "현장중심 예방적 형사활동의 결과이다"며 "완도경찰서는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완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태영 기자

진도군 대대로 영농조합, 남도 우리술 품평회 '우수상'

진도군은 대대로 영농조합법인의 '진도홍주 58'가 최근에 열린 '2024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품미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술 품평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가 주관해 매년 전남지역 주조장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시판 중인 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진도홍주 58'는 지초와 국산 쌀로 빚은 순곡주로 이번 품평회에서 전문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증류주 부문(리큐어)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 무형유산 제26호로 지정된 진도홍주는 고려 말기에 처음 빚기 시작해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술로 인정받은 후 한국 전통주로 전승·보존되고 있다.



진도홍주가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진도군 제공

홍주의 주재료인 붉은 빛을 내는 지초는 시코닌과 프락토올리고당을 다량 함유해 △항비만·항암·항당뇨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력 강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속적 연구를 통해 진도홍주의 대중화와 판로의 확대 및 다양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